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 중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공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원은 사들이겠다.”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보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방출 기능 외에 미세먼지 흡수에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시 주민의 치유기능과 함께 여가공간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남동 지역은 1인당 공원 면적이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남근린공원은 남산녹지축 연결 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한남동 지역주민에게 매우 귀중한 공간입니다. 개발압력 또한 거센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공원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을 대비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추산 토지보상비가 약 3,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와 정부 지원 없이는 도시공원 해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 청원은 한남근린공원 보존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용산구와 적극적인 협의·조치를 통해 공원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청원 통과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